

# 韓國十進分類法の 助記法에 對하여

— 分類法活用の 한 試圖로서 —

李 丙 洙

韓國十進分類法(KDC)이 年餘의 陣痛끝에 3個月前에 出生하였다. 館界에 있는 사람은 이 새 分類表의 탄생을 祝賀하고 歡迎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分類表의 出生과 더불어 그것을 適用하기 爲한 準備로서 理解가 第一의 問題다. 이러한 意味에서 分類法 理解問題中의 한가지인 助記法의 大綱을 說明해 보고자 試圖했다. 이것의 正否에 對해서는 많은 전달을 주기 바란다.

KDC가 이미 出生한 以上은 韓國圖書館界의 共同資料다. 이것에 對한 解釋과 適用은 各館의 事情에 따라서 多少間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一般의 인 共通性을 求하여 說明해 보겠다.

## 1. 助記法(mnemonics)의 意味

助記라는 말은 文字 그대로 記憶을 돕는다는 것을 뜻하며 原語인 mnemonic란 말도 <記憶을 돕는> 또는 <記憶을 增進시키는> 등의 形容詞로 쓰이고 있다. Sayers의 定義에 依하면 助記性(mnemonic characteristics)이란 <分類表內의 어떤곳에 適用될 때에 可能한 限 一定한 意味를 갖게 하는 方法으로 記號를 使用한 것>(the use of symbols in such manner that they have a more or less constant meaning when applied anywhere in the scheme)이라고 한다. 이 助記性은 分類表編纂에 있어서 同質의 部面(aspect 또 facet)이나 同種의

形式이 그 主題에 따라 分散하게 될 경우 그 共通性을 抽出하여 同一性格의 것은 可能한 限 同一한 記號를 使用하여 나타내고 記號에 共通의 意味를 賦與하는 것이다. 助記性을 두는 目的은 分類表의 組織을 單純化하고 伸縮性있게 하여 그것의 理解 및 記憶을 도와 쉽게 하고 最少限表나 索引을 參照하는 勞力도 덜어 주며 나가서는 分類作業과 利用의 便利를 期하는 것이다.

그래서 現代分類表에서는 모두 助記性을 重하게 여기고 이것의 效果의 設定을 圖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DDC·UDC·KDCP(朝鮮十進分類表)·NDC(日本十進分類法) 등이 모두 助記性을 可能한 限 많이 두었고 今年에 出刊한 KDC(韓國十進分類法)도 많은 助記性記號를 設定하고 있다.

이 助記性記號는 이것이 分類表중에 나타난 때는 언제나 똑같은 意味를 가진다. 이의 例를 DDC와 KDC에서 들어 보면 KDC의 語學 710, 文學 800, 歷史 900에서 韓國語 710, 韓國文學 810, 韓國歷史 911에서와 같이 <1>은 모두 韓國을 뜻하고 DDC의 語學 400, 文學 800, 歷史 900에서 英語 420, 英文學 820, 英國歷史 942의 <2>는 各各 英國에 關한 主題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可能한 限 한 記號에 一定하고 固有한 意味를 많이 주는 것이다.

勿論 이<1>이나 <2>가 分類表의 어느곳에서든지 韓國이나 英國에 關한 主題의 意味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다른 意味로 쓰이는 境遇도 있다. 다만 이러한 意味를 주는 것은 可能한 限 같은 意味로 使用하자는 것이다.

이 助記性을 分類表에 設定하는 方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分類表編纂時에 어느 部門에 限해서는 表上에 못박아 固定시켜 버리는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分類作業者가 分類作業의 現場에서 必要한 경우만 添加할 수 있는 助記性記號를 設定해 두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分類表에 이미 體系를 세워 排列된 테로 使用하는 것이지만 後者의 경우는 分類作業者가 그것의 添加行動의 選擇與否를 自由裁量할 수 있다. 이 두가지의 方法은 現代分類表가 모두 適用하고 있다. 그러나 朝鮮十進分類表만은 助記性記號조차도 類와 綱目에까지 編纂當時에 固定시켜 버려서 그외에는 아무리 必要해도 添加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KDC의 普及에 큰 支障을 주고 있는 缺點 가운데에서도 第一로 큰 缺點이다. 그러니 助記性의 效率的 活用이란 것은 分類表의 生命이라고 할 수 있다.

## 2. 韓國十進分類法의 助記性

韓國十進分類法에서는 다른 分類表와 마찬가지로 <分類表上에 固定>하는 方法과 分類作業者의 自由裁量에 依해서 添加할 수 있는 <助記性記號>를 制定하였다. 여기에서는 分類表上의 必要한 部門에 固定시킨 助記性에 對해서는 紙面關係로 略述하고 助記性記號에 對해서 主로 말하겠다.

### (가) 分類表編成時 固定시킨 助記性

韓國十進分類法에서 分類表에 固定시킨 助記性을 찾아 보면 (1) 語學의 國語區分을 總類中の 030 百科事典, 040 一般論文集, 050 一般定期刊物에 適用하여 語學의 綱과 總類(030~050)의 目 또는 細目は 同一國語를 表示하는 助記性記號(國語區分)로 되었고, (2) 語學과 文學의 綱 또는 몇군데의 目 및 細目이 完全히 助記性을 維持하고 있어, 890 其他文學은 展開가 되어 있지 않아도 語學의 791~799의 區分을 文學(800)에 適用하여 分類(例 라틴文學 892)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DDC의 文學 800의 第一次區分이 國語(400)에 依하는 것과 같이 韓國十進分類法의 文學 800의 第一次區分을 國語에 依해서 區分하기 때문에 國語區分이 仔細하게 되어서 可能한 것이다. (3) 地理區分(歷史의 地域區分과 哲學의 地方(各國)哲學區分이 助記性을 維持하고 있다. (이部分에 對한 좀더 詳細한 例는 「國會圖書館報」(第3號)를 參考하기 바란다.

### (나) 助記性記號

다음으로 分類作業時 分類作業을 하는 사람이 必要한 경우 自己의 裁量에 따라서 그 添加與否를 選擇할 수 있는 것이 <助記性記號>인데 이것들은 (1) 主題區分 (2) 形式區分 (3) 國語區分 (4) 言語共通區分 (5) 文學形式區分 (6) 地理區分 (7) 韓國地理區分 (8) 韓國時代區分 (9) 宗教共通區分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宗教共通區分인데 이것은 다른 分類表에서는 이렇게 뚜렷이 각 宗教 및 各教派에 까지 共通의으로 適用하게 한 일은 없으며 韓國十進分類法의 助記性을 可能한 限 豊富하게 해보겠다는 意圖를 反響한 結果라고 본다.

그러면 다음에 各 助記性記號에 對한 簡單한 定義와 그 用法을 말해 보겠다.

### (1) 主題區分

主題區分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ㄱ) 全分類區分(全主題區分).

(ㄴ) 特殊主題 共通區分.

DDC에서는 全分類區分은 <Divide like 000~999>란 指示로 나타내고 特殊主題區分의 指示는 例컨대 <Divide like 620~698>과 같이 하고 있다.

(ㄷ) 全分類區分(全主題區分)

KDC는 分類表上에 區分·排列된 全主題를 어느 特定主題(特定分類)를 다시 細分하는 것으로서 그 細分해야 할 特定主題의 分類記號아래에 <000~999와 같이 區分한다>는 指示를 하고 있다. 이런 指示가 있는 곳에서는 必要하면 主題區分을 하여 주어야 한다.

028 特殊圖書館

000~999와 같이 區分한다.

例: 行政學圖書館 028.35: 科學圖書館 028.4

368 其他諸法

法律圖書館과 같이 特殊法을 한 곳에 모을 必要가 있을 때에 限해서 000~999와 같이 區分한다.

例: 新聞法 368.07

(ㄴ) 特殊主題共通區分(特殊主題區分)

어느 特定主題를 다른 特定主題의 細目으로 區分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例를 든다.

336.425 産業別勞動組合

520~589와 같이 細分한다.

例: 鐵道勞動組合 336.4235

525 園藝

525.1~.3은 521~513과 같이 細分한다.

例: 園藝政策 525.21: 園藝物處理 525.38

(2) 形式區分

<圖書는 먼저 主題에 따라서 分類하고 다음에 그 主題를 나타낸(presenting) 形式에 依해 分類한다>는 分類의 一般規程이 있다. 이 主題를 나타낸 形式을 記號로 定한 것이 形式區分이다. 그러나 위의 規程은 <圖書는 分類表의 特定記號에 依해서 分類하고 形式區分의 記號를 붙여 라>란 말과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形式區分은 例를 들면 辭典과 같이 特殊한 形式으로 主題를 表現한 圖書群을 함께 두어 두기 위한것이다. 그것은 치밀하게 豊富한 資料를 排列하자는데 目的이 있다.

이 形式區分은 Cutter의 「展開分類表(Expensive Classification)」(E. C.)·Shiyali, Ranganathan의 「콜론分類法(Colon Classification)」(C. C.)·Bliss의 「書誌分類法(A Bibliographic Classification)」(B.C.)·Brown의 「主題名分類法(Subject Classification)」(S. C.)·「美國國會圖書館分類法(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L. C.) 및 UDC·DDC·NDC가 모두 있다. 그中 L. C.는 分類表의 全體에 共通하는 形式區分은 없고 各主題의 처음에 그와 같은 形式區分이 있다. 그리고 S. C.는 <Categorical table>(範疇表) B. C.는 Anterior Classes가 一般形式區分을 意味하는 것이다.

韓國十進分類法의 形式區分은 그 02의 細區分에 있어서 좀 다른 點은 있지만 DDC

와 거의 같다. 다음에 그 重要的 것을 든다.

- 01 哲學 및 理論
- 02 便覽 綜覽, 핸드북(參考用)
- 03 辭典, 事典
- 04 論文集, 講演集, 雜隨筆
- 05 定期刊行物
- 06 學會, 團體, 機關, 會議
- 07 研究 및 指導
- 08 全集, 叢書, 講座
- 09 歷史 및 地方取扱

위의 表에서 알 수 있듯이 形式區分은 大部分이 진짜의 形式(true forms)을 나타내는 핸드북·辭典·定期刊行物 등이지만 그중의 몇은 哲學·研究 및 指導·歷史와 같이 主題區分(subject divisions)이다.

이 形式區分은 (ㄱ) 一般的인 用法과 그 記號 (ㄴ) 個個의 意味를 잘 把握하여야만 그것의 活用을 圓滑이 할수 있다.

#### (ㄱ) 一般的인 用法

이 形式區分은 分類表上的 어느 特殊主題에 特別한 指示가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거의 分類表의 全主題에 共通의으로 適用되는 것이다.

◇形式區分은 主題를 나타내는 分類記號에다 붙일 때에 主題의 分類記號와 形式區分의 記號사이엔 언제나 <0>을 同伴한다. (例: 藝術事典 603)

◇그러나 <0>이 다른 特定記號와 함께 쓰인 경우는 <0>을 하나 더 붙여 쓴다. 例를 들면 歷史類(900)에서는 01~07은 各國歷史의 時代區分(古代 그리스史와 羅馬史는 01~09)으로 이미 使用되었으니 形式區分을 하려면 001~007(古代 그리스史 및 羅馬古代史는 001~009)를 形式區分으로 使用해야 한다. (例: 淸史 912.06

<06> 이 時代區分임. 淸史論文集 912.004 形式區分을 한 것). 行政學 350에서도 01~08은 行政의 各主題로 이미 使用되었다.

◇또 어떤 特定項目에서는 이미 <0>이 두개나 다른 意味로 쓰인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000>과 같이 <0>을 3個를 거느리고 形式區分을 하여야 한다. (例: (韓國歷史)補助學 911.002: 韓國歷史便覽 911.0002는 形式區分을 한 例)

◇또 <0>을 省略하고 形式區分의 記號를 目位에 올려 固定시키는 例도 있으며 이것은 特定主題의 圖書·資料가 많을 때에 取하는 措置로 DDC와 NDC가 많이 取하고 있다.

또 300·400等과 같이 <0>이 두개 있는 類에다 形式區分을 하는 경우는 300.2 400.3 等으로 하지 않고 302 403 等과 같이 <0>을 하나만 同伴해야 한다. 그러나 韓國十進分類法에는 DDC와 같이 形式區分이 類마다에 反復하여 設定되었다. 다음에 社會科學(300)의 形式區分을 한 例를 들어 본다.

社會科學	300
社會科學論文集	304
經濟論文集	320.4
經營學論文集	325.04
事務管理論文集	325.404
事務能力論文集	325.4104
事務機械化論文集	325.43104

이제까지는 形式區分과 <0>의 關係를 말했거니와 形式區分을 하는 데는 이 以外에도 疑心이 나는 일이 몇가지 있다.

◇두개의 形式이 어느 特定한 主題에 同等하게 適用될 수 있는 경우는 한 쪽이 主題性이고 다른 것이 形式性的 것은 主

題性(subject nature)의 形式을 選擇한다. 政治哲學辭典이던 形式性的 形式區分<03>(辭典)이 아니라 主題性的 形式인 <01>(哲學)에 分類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시 <圖書는 먼저 主題에 따라서 分類하고 둘째로 그 表現한 形式에 따라서 分類한다>는 規程을 생각하면 그 妥當性을 求할 수 있다.

◇形式區分中の 全部가 아니고 그 一部에 特定한 分類記號가 配當된 境遇 나머지 形式區分은 形式區分의 固有의 意味를 그대로 가진다. 例컨대 有機化學 437에서 <01> <03> <04>, 電氣工學 560에서 <01> <02>에는 各各 特定한 分類記號가 賦與되었어도 그 以外的 것은 그대로 形式區分과 똑같은 意味로 使用한다.

◇어떤 形式區分은 다른 特殊한 意味를 가진 것 같으면서 實際로는 그 形式區분이 內包하고 있는 概念을 具體的으로 擴大說明하거나 같은 意味로 쓰여진 것이 있다. 530.071은 工業教育 技術教育 教育施設만 이 아니라 工業研究를 爲한 講習 및 研究會等도 包含한다.

◇自體의 特定한 分類記號가 없는 主題는 形式區分을 使用하는 것을 避해야 한다. 그것은 將來에 있을 主題의 展開를 妨害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神經系作用藥物彙編>은 512.380이지만 <外用藥劑 512.37>에 包含되는 <止血劑彙編> <脫毛劑 彙編>等은 <512.3702>가 아니고 그대로 <512.37>이어야 한다. <02>를 붙여 버리면 將來의 分類表展開時에 그것에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이다.

◇<分類記號가 5個數字 以上인 경우에는 記號의 繁雜化를 避하기 위하여 形式區分과 地理區分등을 添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다>

이제까지는 形式區分의 一般的인 用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했지만 다음에 形式區分의 各記號의 定義 및 用法을 說明하겠다.

#### (L) 形式區分 各記號 및 用法

다음에 01~09까지 아홉개의 重要한 形式區分을 說明하려니와 그외의 것은 이주된 아홉개의 用法을 알면 모두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다.

01 哲學 및 理論·原論 法則 學說等 어떤 著作의 主題를 理論的 哲學的 心理的 立場에서 다룬 것에 賦與하는 記號다. 또한 어떤 著作의 批評의 理論·原理 및 技法等도 包含한다. 그러나 批評 그 自體는 <批評된 著作과 함께 分類한다.> 이것을 04와 比較하면 04는 非體系의인 論文集으로 各 論文이 獨立性이 強하여 各 論文間의 關聯性이 弱한데 對하여 01은 體系의이다.

例: 宗教哲學 201: 統計學批評論 310.102[便覽, 綜覽, 彙編(參考用)]. 여기에는 綜合的으로 體系 있게 編輯한 參考資料만을 分類한다.(KDC 序說 p xiii)

例: 韓國國會便覽 345.1102: 選舉彙編 344.02

그러나 DDC에서 02에 넣을 수 있는 것中的 한形式인 한 主題의 概要만을 說明한 것 大意만 要約한 것은 그 主題의 總記(例: 320)에 넣는다

例: 經濟學概論 320

03 辭典, 事典, 用語集. 言語의 意味 또는 어떤 主題의 事項說明 및 用語의 解釋을 한 著作 또는 略語集等에 준다.

例: 新聞用語集 070.3(細分하고 싶으면 070.34): 社會學事典 331.03: 漢方醫學辭

典 519.03

04 論文集, 講演集, 特定主題에 關한 論文集 講演集外에도 隨筆 隨錄等に 對하여 形式區分을 하려면 그 特定主題의 分類番號에 <04>를 添加한다.

이 記號는 <01> <08> <05>와 相異한 點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먼저 <01>과 <04>와의 區別을 할 수 있는 基準은 01은 體系의이며 各章이 繼續性이 있고 一貫된 圖書를 分類하는 데 對하여 <04>는 한 사람 또는 두사람 以上이 쓴 論文의 各個가 獨立的이며 論文間의 關係가 弱하거나 없는 論文을 모은 圖書에 주는 記號다. 04와 08의 區別은 形式區分이 아닌 總類의 040(一般論文集, 講演集)과 081~082(個人의 一般全集—二人以上의 一般全集)의 相異點을 究明함으로서 可能하다. 總類의 040은 文學的인 要素가 없는 特殊主題에 分類하기에는 그 主題가 너무 多樣한 한 사람 또는 그 以上の 著者が 쓴 一般論文集으로 그 길이가 짧고 그 取扱함이 非公式的이고 一般的인 것을 分類하는데 對해서 081—082는 그 길이가 길고 取扱에 있어 各卷의 內容이 相互 連關性을 가지고 全體를 通하여 體系의으로 編輯되어 各卷마다 一連의 順序表示가 있는 것을 分類한다. 이러한 것이 큰 참고는 되지만 具體的으로는 뭇이란 것이 把握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나 04와 08과의 區別은 04는 論文을 한권의 책에 모았을 때에 주고 04를 줄 수 있는 圖書라도 卷次番號가 있어 두권以上으로 되고 終刊豫定이 있는 것으로 綜合書名이 있는 것은 叢書로 取扱하여 08(叢書·全集·講座)의 形式區分을 하고, 이런 種類로서 終刊豫定이 없는 것은 05(逐次刊行物)의

記號를 준다는 機械的인 區分이 必要하다. 그러나 文學作品集(例: 小說·詩)은 한 권에 아무리 짧은 作品들을 모았어도 形式區分 04는 줄 수 없다.

例: 企業經濟에 對한 隨筆集 324.04 : (그러나 韓國隨筆 全集은 814.082).

05 定期刊行物, 卷·號·回數 또는 年次를 따라서 發行되는 新聞·雜誌·紀要·報告等 即 逐次的, 定期的으로 出版되는 것에 이 記號를 준다.

例: 經濟新聞 320.5 : 化學雜誌 430.5 : 이런 種類의 圖書·資料는 每日·每週·每月·每年에 隨時로 受入되는 各張 各卷을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一年間分을 適當히 나누어 12冊 또는 알맞는 부피로 製本을 한 다음에 各主題의 分類記號를 주고 05를 添加한다.

053 統計·統計는 數字的으로 統計를 모은 統計書만을 여기에 分類하고 統計學에 관한 것은 이 記號를 쓰지 않는다.

例: 農業統計 520.53

059는 年鑑, 年報는 058에.

例: 農業年鑑 520.59 : 政治學會年報 340.58.

06 學會, 團體, 機關, 會議, 官公署, 事業機關, 私設機關等의 行政이나 會議의 事況을 記錄한 報告·會議錄·事業報告·會員名簿나 役員名簿가 들어 있는 議事錄·公報·一時的인 會議의 會報等이 그 主題가 確實한 경우 그 主題의 分類記號아래에 06을 添加한다.

例: 語學會報 706: 文人會議會議錄 806.3 그러나 위에 말한 特徵이 없고 그 團體나 學會에 關한 事況報告 또는 歷史보다도 그 主題에 對해서 論한 論文集 또는 이와 似한 것 등은 設使 <學會報告>란 書名으로

되었어도 <06>을 주지 않고 單行本이나 定期刊行物이나 叢書等으로 取扱해야 한다. 이 경우 卷次가 있고 終刊豫定이 確實하면 <08>를 주고 終刊豫定이 不確實하면 雜誌로 보아 主題아래서 <05>를 붙인다.

07 研究 및 指導. 여기에는 어느 主題의 研究法(how to study)과 教授法(how to teach)을 論한 圖書를 分類한다. 아무리 書名이 <研究> <指導>等으로 되었어도 研究方法 (methods of studing)이나 教授方法(methods of teaching)에 關한 圖書가 아니면 이 形式記號를 주지 않는다. <經濟學研究> <農業研究>等の 書名을 가진 圖書도 그 主題의 研究의 結果이거나 論文이거나 雜誌 또는 叢書일 때가 許多하니 이런 境遇를 잘 分析해서 01, 04, 05, 08에서 올바른 形式區分을 하여야 한다.

例: 數學教授法 410.7: 國際法研究法 361.07

그러나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의 教師의 學習指導를 爲한 研究·指導法은 教科課程·各教科教授法에 分類한다. 또한 KDC에서는 <方法論>은 <01>아래 <011>로 細分되어 있기도 하다.

08 全集, 叢書, 講座, 特殊主題에 限한 叢書·全集의 形式區分으로 쓰인다. 叢書·講座等の 書名이 붙었어도 모두 叢書로 取扱하여 <08>를 달아 주어서는 안된다. 叢書라도 終刊의 豫定이 없는 것은 逐次刊行物로 取扱하여 <05>를 달아 주어야 한다. 또 各卷이 主題대로 分散하여 單行本으로 取扱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叢書全卷을 全部受入치 못하고 그 몇 卷만을 受入하고 앞으로 受入할 可望이 없는 것은 叢書로 取扱할 수는 없다.

仔細히 分類하는 圖書館에서는 個人全集에는 081, 2人以上の 叢書에는 082를 준다.

例: 圖書館學全集 020.8: 心理學叢書 180.81 (한 個人的 것을 모을것): 韓國語學全書 710.82(2名以上の 著作 叢書): 韓國文學全集 810.82: 韓國詩文學全集 811.082  
위와 같이 文學形式에 限한 叢書는 그 文學形式의 分類記號를 주고 形式區分을 한다. 文學形式區分인 8 雜文學(其他)과 一般形式區分 08과는 混用해서는 안된다.

叢書가 三類(例: 哲學, 宗教, 文學) 以上에 걸친 것은 一般叢書로 간주하여 總類中의 一般全集·叢書인 080·081·082에 分類한다.

09 歷史 및 地方取扱·어떤 主題가 歷史와 地域에 依해서 限定될 경우 主題의 分類記號아래에 09를 준다. 即 主題의 歷史 및 史料와 現在의 地域의인 事情等에 쓴다.

◇主題의 歷史를 다룬 圖書의 分類.

韓國憲法史 362.1109: 機械工學史 550.9

◇韓國政治現勢 340.911. 이와 같이 한 主題의 歷史 및 事情의 紹介를 한 圖書로서 그 地域을 表示해야 할 경우는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을 한다.

韓國公益事業紹介 326.0911

◇09는 日에 固定시키고 0을 省略하여 쓴 경우가 있다.

例: 各國法 및 例規 369: 各國曆 449  
※ <地理區分>을 참조하기 바란다.

099 傳記, 名簿, 名鑑. 이 形式區分은 歷史類아래의 999에 分類하지 않고 著者が 貢獻한 密接한 主題에 分類하려는 경우에 使用한다.

例: 文學者傳記 809.9: 韓國哲學者傳記  
151.099: 音樂者傳記 670.99

傳記를 主題아래 分類하면 專門圖書館에서 利用에 便利하다. 또한, 文學者 音樂家, 哲學者 등은 主題와 함께 分類함이 좋다. 이들의 生涯는 特히 그들이 바친 그 主題와 關聯이 密接하기 때문이다.

### (3) 國語區分

語學類中の 各國語의 記號를 語學以外의 다른 主題에 同伴하여 그 主題를 區分하는 記號를 말한다. 語學以外的 主題에 國語區分을 適用하는 것을 DDC나 NDC에서도 볼 수 있다. 韓國十進分類法도 700 語學의 各國語區分을 國語區分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語學以外的 主題에 國語區分이 適用된 것을 보면 總類(000)의 百科事典(0.30)·一般論文集(040)·一般定期刊行物(050)·叢書(081.~082)와 言語人類學(471.8) 및 文學(800)等等인데 이것은 DDC나 NDC도 마찬가지로 이 部門에 對해서 國語區分을 하고 있다. DDC는 <Divide like 420~499>, <Divide like 420~429, 470~499> 등과 같이 指示하고 있다. 韓國十進分類法에서는 <780~799와 같이 區分한다.> 또는 <710~779와 같이 言語區分한다>로 指示하고 있다.

이렇게 國語區分을 하게 되는 것은 地理區分을 하거나 다른 區分을 함이 適當치 못할 때이며 國語區分의 助記性을 가지게 하여 分類表를 簡素하게 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다음에 國語區分의 重要한 것을 든다.

- 1 韓國語
- 2 中國語
- 3 日本語
- 4 英語

5 獨逸語

59 其他 케로만語

6 佛蘭西語

7 스페인語

79 포르투갈語

8 이탈리아語

9 其他 諸語

928 러시아語

例: 한글活字 669.311: 中國活字便覽  
669.312

### (4) 言語共通區分

이것은 語學類안에서만 使用하는 區分記號다. 語學類內에서 世界各國의 國語를 表示하는 國語區分의 記號以外에 主題나 그 國語를 다른 形式을 一定한 記號로 定하여서 各國語에 共通하게 適用하는 것이 더 이것 亦是 助記性을 活用하여 分類表를 簡素하게 하자는 것으로 매우 便利한 記號이다. 쉽게 말하면 이 記號는 한나라의 國語의 主題나 形式을 表示한 記號로 다른 나라의 區分에도 適用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中國語辭典>을 나누면 <中國語>는 한 나라의 國語를 나타내는 것이요 <辭典>은 이 國語를 어떠한 見地에서 다른 形式을 말하는 것이니 이<形式>은 各國語에 共通의 存在하는 것이다. 이 形式(辭典)을 한 記號(3)로 定하여 各國語에 共通의 添加하여 쓰자는 것이다. 이것 亦是 DDC·NDC·KDCP가 모두 지니고 있다. 言語共通區分(國語共通區分)은 다음과 같다.

1. 音韻 및 文字
2. 語源
3. 辭典
4. 語彙



5. 文法
6. 作文
7. 讀本, 解釋, 會話
8. 古語, 方言

이 國語共通區分은 一般形式區分과 같이 <0>을 同伴하여 使用하지 않는다. 英語文法을 記號化하면 745이지 740.5가 아니다. 740.5는 英語學雜誌가 되는 것이다. <05>는 形式區分으로 定期刊行物을 뜻하니 말이다.

韓國語(710)·中國語(720)·日本語(730)는 目位는 共通의 言語共通區分을 使用하고 있으나 細目에 있어서는 그 各國語의 特性에 따라 조금씩 다른 細目展開를 하고 있다.

歐羅巴의 主要國語(740~780)는 英語(740)를 基準으로 해서 區分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 指示가 없는 其他諸語(791~799.9)에서는 必要하면 言語共通區分을 할 수 있다.

例: 포르투갈語文法 779.5: 터어키語讀本 791.47: 히말라야語의 音韻 791.791: 佛蘭西語 語彙論 764

語學(700)에서 語學事典과 言語辭典과는 다르다. 語學事典은 語學研究의 過程에서 생긴 學問의 用語 및 學說等을 主要素로 編纂한 것이고 言語(國語)辭典은 낱말의 풀이를 한 것이다. 分類時에는 分類表에 特別한 設定이 없으면 言語辭典과 함께 分類(佛蘭西語學事典 763)해도 좋고 嚴格히 區別하고자 하면 語學事典에는 一般形式區分中의 辭典·事典의 記號<03>을 使用해도 좋다.

例: 佛蘭西語學事典 760.3: 韓國語學事典 710.3

또한 注意를 해야 할 것은 玉篇·漢韓

字典等 漢文字를 찾아 보는 것에 目的이 있는 字典類는 中國의 文字辭典으로 取扱하지 말고 그것을 배우려고 한 國民의 國語(解釋된 말이 아니라 解釋한 말)와 함께 分類해야 한다. 이것은 <兩國語辭典은 자기 圖書館으로 보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말아래 分類한다>는 規程에는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漢文字典은 特殊한 取扱이 될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서 發行人 漢韓字典은 韓國語(710)아래 日本에서 發行人 漢和字典은 日本語(730)아래의 漢和字典733.2에 分類한다. 韓國語는 漢韓字典의 자리가 713.2에 設定되었으나 그외는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設定이 없는 나라의 것은 韓國아래서와 같이 區分하면된다.

### (5) 文學形式區分

文學形式區分은 國語共通區분이 語學類內에서만 各國語에 共通의 適用되듯이 文學類(800)內에서만 各國文學에 共通의 適用되는 區分이다. 더 正確하게 말하자면 한 나라의 文學을 區分하는 形式으로 다른 나라의 文學도 그 形式에 依해서 區分하는 것이 文學形式區分이다. 即 文學의 外的 장르(Genre)인 詩·戲曲·小說·隨筆·評論·日記·書翰·諷刺等을 一定한 記號로 表示하고 이것을 各國文學아래에 붙여 주는 것이 文學形式區分이다. 이러한 區分은 KDCP·DDC·NDC 등이 모두 있으며 그 記號도 거의가 같다. 韓國十進分類法의 文學形式區分도 DDC와는 같고 NDC와는 거의 같다.

文學도 語學과 같이 韓國·中國·日本·等은 그 特性에 따라 細目이 展開되었으나 850에서 880까지는 英文學(841~848)과 같이 區分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그

러나 詩自體에 있어서도 抒情詩·劇詩等으로 細分할 수 있고 時代順으로 古代詩·中世詩·近世詩·現代詩等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KDC에는 그런 細分은 없다. 이런 것을 圖書館의 必要에 따라 展開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다만 文學形式區分만을 紹介함이 目的이니 論할 바가 아니다.

1. 詩
2. 戲曲
3. 小說
4. 隨筆, 小品
5. 演說, 雄辯
6. 日記, 書簡, 紀行
7. 諷刺
8. 其他

위에서 알 수 있듯이 DDC의 것과 같다. 이 文學形式區分 亦是 一般形式區分에서 하듯 <0>을 同伴하지 않는다는 것을 注意하여야 한다. 英小說하면 小說의 形式記號인 3을 붙여서 843으로 해야지 <03>을 붙여서 840.3으로 하지 않는다. 840은 英文學이니 <03>을 붙이면 英小說事典이 되는 것이다.

演說·雄辯·日記·紀行은 文學의 價値가 있는 것만을 文學形式에 依해서 分類한다. 文學評論은 文學隨筆에 分類하지 않고 文學의 歷史와 함께 分類하고 文學의 한 形式(例: 詩·小說·戲曲等)에 對한 批評은 그 形式에 分類한다.

例: 韓國文學評論 810.9: 韓國小說評 813.09(圖書館에 따라서 813에 分類해도 좋다): 英美文學評論 840.9: 韓國隨筆 814 여기에서 말해 둘 것은 <圖書는 먼저 主題에 依해서 分類한 다음에 形式에 依해서 分類한다>는 一般規程과는 달리 文學에 있어서는 總類<圖書館學 및 書誌學은 例

外)와 마찬가지로 形式에 依해서 分類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文學은 分類表 構成에 있어서 第1次區分을 原作品의 國語, 第2次區分을 文學의 形式(詩·小說·戲曲·第3次區分을 時代로 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文學의 區分이나 몇개의 文學에서는 그 區분이 第4位 또는 第5位까지 내려간 例도 있다.

例: 813 小說

813.4 高麗時代小說

813.5 李朝時代小說

813.6 現代小說

813.7 野談, 古談

文學形式區分中 3(小說)은 公共圖書館에서는 分類番號를 使用하지 않고 <F>字를 使用하여 作家의 音順으로 排列하는 方法도 있다.

文學形式區分 7(諷刺)는 滑稽文·滑稽小說을 分類함이 좋으나 現代小說에서 尤모 아小說만을 따로 分類함은 無意味하니 7을 除수 있는 것은 標語와 같은 直接諷刺·滑稽를 目的으로 한 短文集만을 分類한다.

例: 英美유모어集 柳津著 847

世界유모어文學全集 正晉社 808.7:

#### (6) 地理區分

어느 한 主題가 特定地域에만 限定해서 다루어졌을 경우 그 特定地域을 爲해서 一定한 記號를 定한 것을 말한다. 이 地理區分은 歷史類의 各國區分을 다른 主題에 適用하는 方法과 別途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EC·CC·LC는 別途로 만들어 쓰고 DDC·NDC는 歷史의 地方區分을 地理區分으로 쓰고 있다. 兩種의 方法은 그 長短을 간단하게 判定할 수 없지만 歷史類의 地方區分을 地理區分으로 適用하는 것은 單純하고 分類表의

簡素함을 피할 수 있어 利用과 記憶에 便利하다. 韓國十進分類法도 DDC와 같이 歷史類(900)의 地方區分을 各主題에 共通의 地理區分으로 適用하는 地理區分으로 使用하고 있다.

韓國十進分類法 900 歷史는 910~979가 歷史, 980~989는 地理, 990~999는 傳記로 構成되었다. 各國의 歷史를 나타내는 分類記號인 910~979가 特定地域에 限定된 主題의 地理區分으로 쓰인다. 即 特定主題의 分類記號 아래서 地方을 表示하는 地理區分記號를 添加하는 것이다. 910~979中 歷史를 뜻하는 9를 빼어버린 第2位부터가 地理區分에 쓰이는 記號인데 第2位가 大陸區分이고 第3位가 國家區分이다.

KDC는 DDC, NDC와 같이 地域別地理(981~987) 即 地誌의 地方區分을 歷史의 分類記號인 910~979를 使用하고 있다. 그리고 地圖 및 地圖冊은 989아래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한다. KDC의 地理區分이 必要한 項目에는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한다>는 指示가 있다. KDC의 地理區分의 要領은 다음 다섯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ㄱ) 分類表에 <地理區分한다>는 指示가 없어도 어떤 곳에서든지 必要하면 地理區分을 한다. 이 때는 <0910~0979>를 가지고 地理區分(例: 韓國의 水上競技 696.0911)한다.

(ㄴ) 國家區分만 붙여 준다. 이 경우 大陸區分の 記號가 分類表에 指示되었으니 大陸區分 및 國家區分記號를 添加(例: 스페인 國歌 673.927)하면 된다.

(ㄷ) 한 主題의 歷史를 表示하는 分類記號(例: 670.9)만 分類表에 있고 地理區分의 表示가 없어도 地理區分이 必要한

경우는 大陸區分부터 붙여 地理區分(例: 中國音樂史 670.911)한다.

(ㄹ) 分類表에 特殊地方의 事情을 나타내기 爲해서 設定해진 (9)가 있는 경우(例: 331.9:669.719)는 大陸區分부터 붙여 地理區分(例: 中國社會調查 331.912)한다.

(ㄹ) 09가 分類表에 設定된 경우(例: 309)는 大陸區分부터 붙여서 地理區分(例: 中國社會文化事情 309.12)한다. 이것은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한다>는 註가 있는 경우 大體로 使用하는 方法이다. 六大洲의 地理區分記號는 다음과 같다.

地理區分	地域名	歷史記號
1	아 시 아	910
2	유 럽	920
3	아 프 리 카	930
4	北아메리카	940
5	南아메리카	950
6	오세아니아	96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理區分은 歷史의 地方區分과 助記性을 가진다.

KDC에는 <韓國地理區分>도 別表로 내놓고 있다. 이것의 用法은 前者와 같으며 各國의 地理區分은 別表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地方區分으로 適用되는 것이다.

### (7) 時代區分

어느 特殊主題(例: 藝術·文學等等)의 時代區分으로 歷史類의 時代區分을 共通의 地理區分으로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時代區分은 分類表에 따라서는 한 國家에만 通用하는 것, 그것을 他主題의 時代區分에도 適用한 것이 있으나 그 各個가 一律의 同一하게 區分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分類表에서 찾아 보고 그 共通點을 求해야 한다. 歷史類에서의 各國의 各時代

區分은 DDC 및 NDC가 모두 0를 同伴하고 있다.

韓國十進分類法도 0을 時代區分의 記號 앞에 同伴하고 있는데 古代그리스 및 羅馬古代史가 01~09까지를 그 時代區分으로 使用한 것을 例外로 各國의 時代區分은 01~07까지를 使用하고 있다. KDC는 <韓國時代區分>을 助記表에 내놓고 있으나 歷史와 韓國文學의 一部分에 만 適用하고, 유럽(920)의 時代區分(920.1~920.5)을 藝術中の 西洋藝術史·建築史·彫刻等の 時代區分으로 適用하고 있다. (分類表中의 609.1~609.5를 참조할 것)

#### (8) 宗教共通區分

各宗教 및 그 教派에 適用할수 있는 宗教共通區分은 다른 分類表에는 없다. 그러나 한 宗教나 一部分에 對해서 部分的으로 適用한 分類表은 있다. KDC에서는 比較宗教의 目位에 區分된 記號를 佛教·基督教·道教·天道教·檀君教·回教等の

諸宗教 및 더 細分하고자 하면 한 宗教中の 各宗派나 教派에 까지 共通의 適用하게 되었다. 이것은 各宗教에 內包한 特異한 主題나 儀式을 8種의 類型으로 設定하여 一定한 記號를 주어서 表를 組織하고 助記性을 維持하여 記憶과 使用에 便利케 하자는 것이다.

1. 教理, 教義
2. 宗祖, 開宗者
3. 宗典, 教典
4. 宗教信仰, 信仰錄, 個仰(修道)生活
5. 宗教布教, 傳道活動
6. 宗團, 教團(寺院 教會包含 筆者社)
7. 禮拜形式, 儀式, 典禮
8. 宗派, 教派

이것 亦是 文學形式區分이나 國語共通區分처럼 0을 同伴하지 않고 區分한다.

例: 基督教儀式 237: 長老教會儀式

238.57

## 도 험 월 보 원 고 모 집

本報에 掲載할 原稿를 募集합니다.

圖書館學에 關한 研究論文 및 奉仕에 參考가 될 經驗談 其他 全會員에게 有益할 內容의 어떠한 글도 歡迎합니다. 많이 보내 주시기 苦待합니다.

編輯室